

주간농업·농촌동향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

※ 본 자료는 1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“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” 중 농업부문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.

□ 2011년 물가전망

- (농수산물) 지난해 가격급등 여파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상반기 이후에 예년수준을 회복할 전망, 다만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적 수급불안 가능성 상존
- (가공식품) 곡물 수입가격 상승으로 가공제품 가격인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□ 농업부문 주요내용

1. 품목별 수급대책 마련

- (채소) **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**을 상반기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, 하반기 적정생산에 주력
 - 배추는 5천 톤을 사전비축(aI)하여 공급량이 감소하는 3~4월에 방출
 - ※ 1~2월은 1천톤을 상시저장후 폭설 등으로 일시적 물량 급감시 출하(농협)
 - **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**(9천 톤)을 지속 방출하고, '11년 할당관세 물량(26.5천 톤)을 햇마늘 수확전(4월) 도입·판매
 - ※ '11년 김장철수요에 대비, 국산마늘 상시비축(10천 톤, 11~12월 방출)
- (과실) 상반기 **대과(大果) 부족에 대한 대책 강화**
 - 농협에서 중소(中小)과일 선물세트를 제작하여 설 성수기에 판매하고,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중소과(中小果)소비 홍보 실시(1월)

- (축산물)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**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**하여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 완화
 - 분유 의무수입물량(1.6천 톤) 조기도입(3월) 및 할당관세 추진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
- (수산물) **고등어 할당관세 도입물량**(1만 톤)을 1월중 시장에 전량 공급하고,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인하 유도
 - 수산물 공급불안 조기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추진
 - ※ (예) 고등어(10→0%, 1만 톤), 냉동명태필렛(10→0%, 1천 톤) (1월중)

2.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

- (농업관측의 실효성 제고) 기상변화 등에 따른 **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**을 개발·활용
 - 분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**조사표본 확대**(채소 2,557→3,657호)
 - 정보제공의 대상과 **발간주기**를 개선하여 활용도 제고
 - ※ 관측정보 제공대상 : (현행) 생산자 중심 → (개선) 유통·가공업체 포함
 - ※ 발간주기 : (현행) 1회 → (개선, 7~10월) 3회
- (계약재배 내실화) 계약조건 개선을 통해 계약규모 확대
 -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이 원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추가하고, 농협 외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사업관리주체에 포함.
 - ※ 현재는 농민이 재배 후 농협은 판매만 대행하는 방식(매취형)이나, 농협이 재배까지 대행하는 방식(포전매매형)을 추가
 -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고, 관측결과 공급부족 전망 시 추가계약을 통해 공급량 추가 확보
 - ※ 계약목표(채소) : ('10) 475천 톤, 생산량의 10%수준 → ('11) 906천 톤, 15%
 - **가공업체에 대한 계약재배물량** 공급을 확대하여 원물(배추) 가격 불안 시 김치 등 농산물 가공품 공급확대 유도
- (산지유통인 제도개선)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및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, 거래 투명성 제고

-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유통공사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
- ※ 예 : 물류표준화사업비 지원, 11년 179억 원

3.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

- **(농협 직거래 확대)** 계약재배물량의 도매시장 공급을 줄이고, 재래시장·가공업체 등과의 **직거래 방식**으로 점진적 전환
 - 농협 계약재배 물량 직거래 비중 : (현행) 35% → ('11) 45%
- **(소비자 접근성 제고) 농산물온라인 직거래**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(나라장터) 조기구축으로 편리성 증진 (5월)
 -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**Local-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** 확충
 - ※ (예)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('09년 개장)은 원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주에서 직거래하여 유통비용 절감 (연 매출 75억 원)
 - 사이버거래소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연중 일정한 가격공급(aT)

4. 곡물가격 및 가공식품 불안 대응

- (국내외시장 분석 강화) **'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'**(농식품부, 유통공사, 민간전문가) 등을 통해 국제곡물 및 국내시장 분석 강화
 - 국제가격 전망, 국내 파급효과(품목별 원가비중, 시차) 등 분석
- **(가공식품 민·관협의회** 구성) 업계 애로사항 및 물가동향 공유를 통해 물가 불안요인을 사전점검(주1회)
 - 가공식품 인상수준 최소화 및 시기분산 유도
- **(국가곡물조달시스템** 구축)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aT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곡물회사 설립(5월)
 - 현지법인을 통해 연내 콩·옥수수 10만 톤을 수입하고, 연차별 확대
 - ※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대책 추진일정은 부록 참고

부록

<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대책 추진일정>

	실천 과제	일정
품목별 대책추진	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방출 (배추·마늘)	1/4분기
	도축장 폐쇄조치 제한적 해제로 축산물 공급부담 완화	1/4분기
	분유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 및 할당관세 추진	1/4분기
	할당관세 추진으로 수산물 공급불안 해소	1월
수급안정 시스템 강화	농업관측 조사표본 확대, 발간주기 개선 등 실효성 제고	1월
	계약재배 주체(유통공사추가) 및 방식(포전매매형 추가) 개선	1/4분기
	계약재배 물량 확대 (9%→15%)	연중
	산지유통인 법인화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	상반기
유통구조 개선	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재래시장, 가공업체 등 직거래 확대	연중
	직거래 사이트 통합홈페이지(나라장터) 구축	5월
	Local-food 직거래 장터 확충	상반기
	사이버거래소 사전예약제 운영	1/4분기
곡물 공급기반 강화	국제곡물 정보분석 협의회 구성 및 시장분석 강화	1월~
	해외 곡물회사(aT-민간기업 컨소시엄) 설립	5월
가공식품 가격안정	민·관 가공식품 합동 협의회 구성	1월

※ 본 자료는 1월 7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“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배경

-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자로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짐.
- 농식품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의 혼재로 인한 소비자 혼란에 따라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 개편과 인증 대표 통합표지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

□ 주요내용

○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·단순화

- 금년 중에 가공식품 KS, 전통식품,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
-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있는 **지리적표시제,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하여**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 계획
-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를 **안전식품인증제**로 통합
-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·관리하는 ‘**한국 농수산물표준제도(KAS : Korean Agro-Foods Standard)**’를 도입
-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표지(로고)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**공통표지** 도입
- 공통표지는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으며, 금년 상반기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

-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임. 따라서 늦어도 **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** 전망

※ 인증목적별 표지바탕색 : 초록(친환경), 적색(안전성), 파랑(품질특성)

<공통표지(Logo) 도안(안)>

구분	친환경인증	안전관리인증	품질·특성인증
현행			
개선			

-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
-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(ISO Guide 65)을 수용하여 인증기관 지정·관리를 강화
 - ※ ISO의 인정기관 지정·관리 기준(ISO Guide 65)은 미국, 유럽연합,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정기관 관리방식으로 인력 및 조직관리, 문서화 등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설정
- **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**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·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 유도.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친환경농업육성법, 식품산업진흥법 등 **관계법령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**할 예정
- **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**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
 - ※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'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의 약 47%를 담당

○ 농식품부는 달라지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

-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**농식품 인증정보 종합포털사이트**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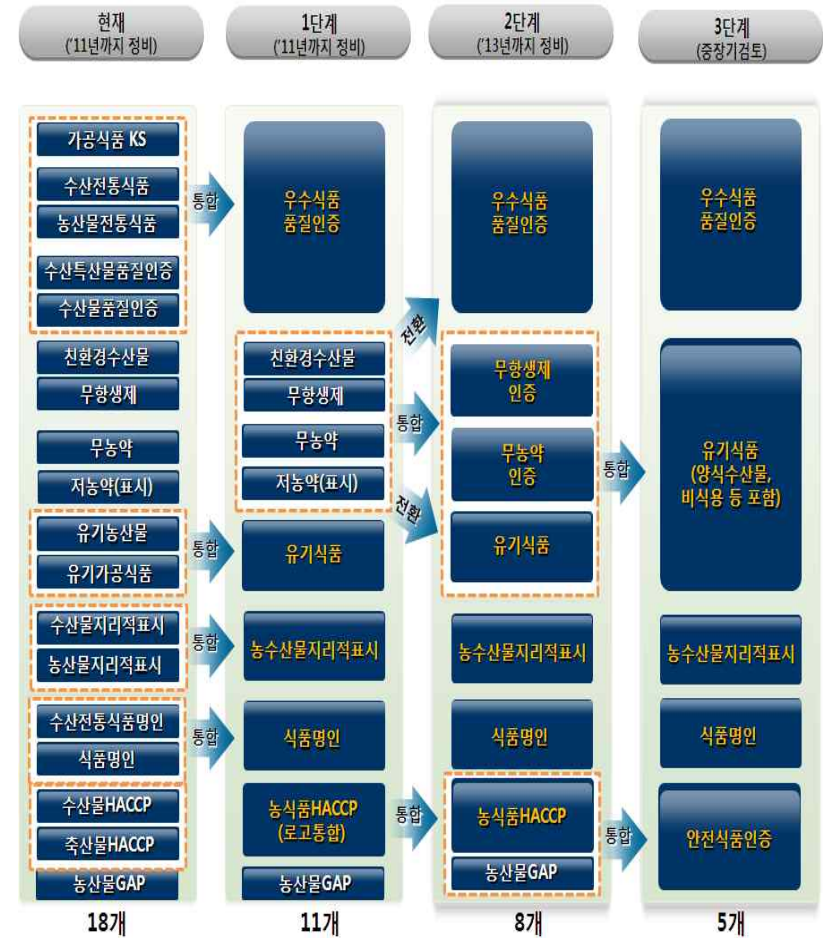
- 또한, TV 등 대중매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적극 추진

※ 부록

1.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(안: 도식)
2. 공동표지 적용례

부록 1

<농식품 인증제도 개편(안)>



부록 2

<공동표지 적용례>

구분	인증제도명	인증표지(現)	통합표지(안)
친환경 인증	○ 유기농식품 인증		
	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유기)		
	○ 친환경수산물 인증		
	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무항생제)		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무농약)			
안전인증	○ 우수농산물(GAP) 인증		
	○ 수산물 HACCP		
	○ 축산물 HACCP		
품질·특성 인증	○ 수산물지리적표시		
	○ 농산물지리적표시		
	○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		
	○ 전통식품 품질인증		
	○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		
	○ 식품명인지정		
	○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	-	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**

※ 본 자료는 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곤충산업 현황

1. 시장규모

○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'09년 약 1,570억 원으로 추정, '15년 2,980억 원 전망

<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(2009)>

단위: 억 원

활용분야	대상곤충종류	시장규모	
		'09	'15 전망
학습·애완곤충	장수풍뎅이, 사슴벌레, 꽃무지 등 50여종	400	540
화분매개곤충	뒤영벌, 가위벌, 꿀벌	540	880
천적곤충	무당벌레, 진디혹파리, 칠레이리웅에 등 34종	230	300
지역행사곤충	나비류, 반딧불이 등	400	560
사료용, 의약용	동애등에, 풍뎅이유충, 거미, 거머리 등	-	700
합계		1,570	2,980

자료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양봉협회(꿀벌 화분매개 시장규모, 2010)

2. 곤충생산 현황

○ 곤충 사육농가 총 265호 농가, 대부분이 영세하고 일부 부업형태로 경영(201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)

- 비닐하우스, 가건물 등 낙후된 사육시설에서 사육

<곤충 사육농가 현황>

계	경기 (인천)	강원	충북	충남 (대전)	경북 (대구)	경남 (울산)	전북	전남 (광주)	제주
265호	43	15	48	13	14	51	6	71	4

주: 품종은 장수풍뎅이, 꽃무지, 화분매개 꿀벌, 사슴벌레, 귀뚜라미 등

- 곤충 체험학습장 66개소(경인지역 18, 강원16, 경북 11 등), 연 136만 명 관람 (201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)
- 곤충생태공원 18개소(경인지역 5, 충북 3, 경북 3등), 연 100만 명 관람
- 곤충연구소 18개소 민간 13개소, 지자체 운영이 5개소
 - ※ 5개소 경기도농업기술원, 예천곤충연구소, 무주반딧불이연구소, 함평곤충연구소 등

□ 곤충산업육성 5개년 증압계획 주요 내용

- (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)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 산업소재로 제공
 -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곤충의 가치 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추진
- (곤충자원의 R&D 강화) 곤충자원을 식약용 원료로 사용 검증 및 바이오소재 개발 등의 연구 강화
 -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
 -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
 - 토착 천적 및 화분매개 곤충(토종 호박벌)의 실용화 연구 지원
- (곤충농가 육성지원) 곤충사육농가 육성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기반 조성 계획
 -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현대화·전문화 지원
 - 동애등애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사업지원
 - 지역단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 검토
- 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)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·운영 등을 통해 곤충전문가 양성 지원 계획

- 곤충관련 대학·협회·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운영
- 곤충산업 교육과정 신설(농업연수원, 농촌진흥청)

<금년 투자 계획: 총 91억 원 투자>

- '곤충생산단지 및 곤충체험시설' 사업비 56억 원 중 34억 원(국고 17, 지방비 17)을 지원하여 전국에 12개소 조성
- '동애등애를 이용하여 유기성자원을 사료화·비료화'하는 사업비 14억 원 (국고 7, 지방비 7)을 지원하여 전국에 7개소 조성
 - ※ 동애등애: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물질 분해가 탁월한 파리종류
- 곤충의 식약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 및 약리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